여론조사·배제투표·조직력이 승패 가른다

민주 全大 뒤흔들 막판 '3대 변수' 관심

빅3, 당원 표심잡고 '1인2표제' 공들이기

민주당 10·3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성적을 좌우할 막판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두권 그룹은 당권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하위권 그룹은 '탈(脫) 꼴찌'를 위해 이같은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변수를 승기를 잡는 기회로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대회에서 정동영, 정세균, 최재성, 박주선, 천정배, 이인영, 손학규, 조배숙 후보(왼쪽부터)가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30% 여론조사=본선 성적의 30%에 해당하는 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최대 변수다. 당내에서는 대의원 투표 판세에서 빅3가 혼전세를 보이고 있어 후보별 승패는 전대 직전 4만여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이 여론조사는 손학규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당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와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손 후보는 지난 21일 한 언론의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당권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당원의 대부분이 호남 출신이어서 호남 출신의 당권 주자도 만만치 않은 지지도가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배제투표=애초 빅3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서로 '배제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각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빅3 중 두 명에게 각각 1표를 주겠다고 밝힌 대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본선에서 1순위표는 물론 2순위표도 빅3를 포함, 상위권 주자에게 몰릴 경우 하위권은 낮은 득표율 속에서 피말리는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빅3들은 대의원 투표에서 본인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 공을 들이는 동시에 서로 '정세균 연임불가론', '대선 패배 정동영 불가론',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불가론' 등의 '당 대표 불가론'을 확산시키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배제투표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빅3가 서로 강하게 배제투표를 지시할 경우 박주선 후보가 '어부지리 효과'로 본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직력=일단 빅3 중 정세균 후보가 지역위원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 조직력에 있어서는 우세하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반면 손학규 후보는 국민과 당원 등 풀뿌리 인기를 등에 업고 지역위원장 등 상위 조직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역위원장 확보 면에서 열세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13곳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중립성향 위원장을 빼면, 광주와 전남 등 4곳은 손 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세균 후보는 부산 등 3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면에서는 손학규, 정세균 두 후보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 있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등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지난 대선후보란 면에서 인지도가 우세하고 바닥 조직도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빅3 외 광주·전남이 기반인 박주선 후보도 10~15%의 고정표를 갖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대 계파별 전략투표 가시화

빅3-군소후보 동반진출 포석… 쇄신연대, 천정배 구하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파별 전략투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는 여성 주자로서 순위와 상관없이 이미 최고위원 당선이 확정된 조배숙 의원을 뺀 7명이 지도부 6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민주당 각 계파는 물론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 빅 3 진영에서는 유불리를 저울질 하면서 5~6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천정배, 이인영, 최재성 후보를 대상으로 지원 또는 배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당내 비주류연합체인 쇄신연대는 1인 2표 방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대에서 한 표는 천정배 의원에게 몰아주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일명 '천정배 일병 구하기 운동'으로 이름까지 붙였다는 후문이며 비주류 일각에서는 정세균 후보의 직계인 최 후보에 대한 배제투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쇄신연대 핵심 인사는 "이번 전당대회는 전 지도부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이 짙다"며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들에게 2표 가운데 1표를 밀어주기로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말했다.

486 단일후보 자격으로 나선 이인영 후보는 당내 각 계파 소속 인사들이 '품앗이' 지원을 받고 있다. 김근태 전 의원 계열인 이 후보의 경우 계파색이 엷은 편이어서 반대 세력이 적기 때문이다.

당장, 정세균 후보와 가까운 원혜영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자원한데 이어 임종석, 우상호 전 의원이 지원하고 있고, 범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철우, 이기우 전 의원과 정동영계의 박영선 의원, 김현미 전 의원 등도 팔을 걷고 나섰다.

하지만 이 후보는 타 후보군에 비해 당내 조직력이 약해 확고한 득표력을 장담하기 힘든 형편이다.

최재성 후보는 정세균 후보 지지세력 등 주류 그룹이 집단적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로선 최 후보와의 동반 진출이 좌절될 경우 지도부내에 자파 인사가 전무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 빅 3의 순위외에도 누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느냐도 최대 관심사항"이라며 "특히, 최재성 후보의 지도부 입성 여부는 전 지도부에 대한 평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대주자 취약지 공략 안간힘

丁 광주·전남, 鄭 충북, 孫 서울서 표밭 다져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은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취약지역을 적극 공략하며 막판 표밭 점검에 들어갔다.

정세균 후보는 지난 25일 각종 대의원 여론조사에서 정동영, 손학규 후보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광주·전남지역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호남 방문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잇는 정통성을 주장하며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 후보와 탈당 전력이 있는 정동영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상대적 열세 지역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는 충북에 머무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역별로 당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집나갔던 큰 아들이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손 후보는 서울시의원 30여명과 조찬을 가진 뒤 자정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비호남 후보론'을 내세워 바닥 다지기에 나선다. 서울은 각 캠프별로 실시한 여론조사상 손 후보가 정동영 후보에게 다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된 곳이다.

박주선, 이인영 후보도 서울지역을 권역별로 돌았으며 천정배, 최재성 후보는 각각 부산과 인천에서 당원과 대의원 간담회 일정을 이어갔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26일 서울과 인천, 27일 경기 지역 대의원 개편대회에 나란히 참석, 막판 바람몰이에 나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온라인 광폭행보 '눈길'

트위터에 추석동영상 올리고 의정활동 UCC 홍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온라인 광폭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추석맞이 동영상을 올렸다. '마음을 나누는 추석이 되시길…'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박 전 대표 의원실이 제작한 것으로 박 전 대표의 대국민 메시지가 담겨있다. 1분40초짜리인 동영상의 후반 30초에는 박 전 대표가 여러 계층의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이 나온다. 동영상은 일주일여 만에 6천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박 전 대표 의원실이 운영하는 트위터(pgh545)에도 최근 두 개의 UCC(손수제작물) 동영상이 링크됐다. 한 네티즌이 제작한 두 개의 동영상은 박 전 대표가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법안'과 '제대혈 관리·연구법 제정법안'에 대해 제안 배경과 법제화 이후 효과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도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29.1%를 기록, 1주일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9%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오세훈·김문수 차기대권주자 키우기?

공식회의 참석 개정안 마련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시·도정을 넘어 중앙 정치무대에까지 보폭을 넓히힐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당 소속 시·도지사가 중앙당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으며, 이를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지사들도 당무에 참여시키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 들어 당·정·청은 물론 시·도와의 소통 강화 차원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여권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즉, 각종 여론조사상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2위 그룹을 형성하는 오 서울시장과 김 경기지사에게 '경쟁의 장'에 뛰어들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ctcl.co.kr
까띠끌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원 등입니다.)
까띠끌레는!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국내 최초 더마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두바이 등 다수)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판매 및 관리사원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잡가능
지사방문시 행운 가득!
Caticlair 까띠끌레 호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 062)362-1117 / 010-3608-6394

BEST
몽실 발크림 출시!!
약국판매용
튼살!! 굳은살!! 각질제거!!
무릎, 팔꿈치, 복숭아뼈,
발뒤꿈치 케어크림
거칠고 자주 트는 발을 매끈하게
수분 재생 탄력 브라이트닝
몽실 발크림 FOOT CREAM
소비자가₩10,000
점포있으신 분, 취급하실 분 무자본〈판매케이스와 발크림드립니다〉
유사업종 가게하신분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업종 하신 분 환영!
절찬리 판매중!!! 자금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비의 약초
쾌변! 한방에 3일
10일다이어트 3kg~5kg
아랫배 쏙~ 굶지맙시다!
효과없을시 100%환불
1개월분 5만원
(택배무료배송)
영업딜러모집 1시간 투자
월200만가능, 투잡,겸업가능
취급점, 대리점 및 창업자 모집중!
네이버카페 또는 다음카페에서 "유한바이오텍" 검색하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株式會社 유한바이오텍
062) 954-5046
010-4624-5046
010-8364-1496

부동산
미 분 양
광주의 강남!
봉선동 The 더쉴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봉선동 더쉴 할인 물건 전문 공인중개사무소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서강빌딩 매각공고
(위치 : 광천파출소 사거리 대로변)
- 물건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64-6
- 면 적 : · 대지 : 734m²(225평)
· 건물 : 4,764m²(1,412평)
두암신용협동조합
총무과 TEL. 062-263-0136